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앙교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교구별 영성훈련

말씀과 기도, 봉사활동을 통한 거듭나기

11월 11일부터, 교구별로 매주 화·목 중현기도원에서

이번 11월 11일부터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각 교구별 영성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 훈련은 굳은 날씨로 인해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날을 제외하고서는 주로 중현기도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차량과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된다.

지난 10월 1일에 830여명의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가졌던 영성훈련이 교회의 품뽀리인 구역의 영적 회복을 위한 계기였다면, 이번에 시작하는 교구별 영성훈련은 구역의 영적 활성화가 교구 전체의 영적 부흥으로 확장되어가는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 교구는 평균 40-50여개의 구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400-500여 세대, 1,000여명의 성도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가게 되면, 이러한 진보는 자연히 전교회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구역장과 구역에서 시작되는 영적 활로가 교구와 전 교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다.

영성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교구는 자체적인 주제와 주제찬송, 훈련목표를 명시하여 훈련받게 되며, 훈련시간은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 아침 9시 30분부터 교회 도착 시간인 오후 5시까지이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교구 교역자와 교구장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특강이나 말씀 선포는 교구 교역자가 담당한다.

한편, 이번 영성훈련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점심식사 전 1시간 동안 실시하는 '사랑의 봉사' 순서다. 구역별 영성훈련에 봉사의 순서를 포함시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영성이 입과 귀와 마음으로 뿐 아니라, 우

리의 두 손과 두 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중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원에 대한 애착을 고양시켜 자주 기도원을 방문하여 기도하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도 함축되어 있다. "기도원에 올라와 보니까, 우리 교인들보다 타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교회 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기도원에 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애착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랑의 봉사시간을 통해서 기도원에 대한 성도님들의 애착과 사랑이 많이 깊어지고, 또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교회 기도의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종구 장로의 말이다. 이 사랑의 봉사 순서에 따라 첫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1교구는 '김장배추 수확하기'를, 2교구는 '김장담그기'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기도원 환경정리, 주변 청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교구식구들의 정성어린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교구별로 기도원에 올라가는 일정은 아래와 같다.

1교구(11월 11일), 2교구(11월 13일), 3교구(11월 14일), 4교구(11월 20일), 5교구(11월 25일), 6교구(11월 27일), 7교구(12월 2일), 8교구(12월 4일), 9교구(12월 9일), 10교구(12월 11일), 11교구(12월 16일), 12교구(12월 18일), 13교구(12월 23일), 14교구(12월 30일), 15교구(1월 6일), 16교구(1월 8일), 17교구(1월 13일), 19교구-청년교구(1월 15일).

중현기도원 가꾸기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가득한 기도원으로

우리 교회 기도원이 바뀌고 있다. 중현기도원은 지난 10월 당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운영 방식이 독립 운영에서 교회 사무국 운영으로 변경된바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그동안 힘과 정성을 기울여 기도원 살림을 이끌어 오던 이태규 장로의 후임으로 김종구 장로를 파견하였다. 현재 김 장로는 교회 직원의 신분으로 기도원에 상주하면서 기도원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단장하고 분위기를 일신해가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번 11월부터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한 달에 한명씩 기도원에 들어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힘쓰면서, 매일 새벽과 저녁, 매주 수요일예배

를 인도하게 된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상주하는 교역자는 월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기도원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도원 담당 목사의 부재로 조금 흐트러졌던 기도원의 영적 분위기가 한결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중현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기도원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닮기 위한 기도의 열심들이 뜨겁게 배어나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힘있게 해야 할 것이다. 11월 기도원 담당교역자는 이홍성 목사(1교구, 사랑부, 봉사위원회 지도)이다.

한편 매주 금요일 밤 금요집회 후 기도원에서 가지는 철야기도회는 종전대로 진행된다.

새로 임명되신 분

교회는 지난 11월 5일 정기당회에서 98년도 각 위원회 인사 중 추가 임명 및 교체할 하였다. 이에 따라 박노철 강도사가 출판국 부지도로, 한송규 장로가 예배위원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이미 임명받은 사람 중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분들은 다른 일꾼으로 교체되었는데 유년부의 여부감 이학자 권사는 안금자 권사로, 소년부 여부감 이정현 권사는 김영숙 집사로, 그리고 권사회의 회계 최미정 권사는 정명섭 권사로, 부회계의 원길자 권사는 조숙 권사로 각각 교체, 임명되었다.

다음 주일(16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

교회는 다음 주일(11월 16일)을 97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다. 교회에서는 주일예배시 특별감사헌금을 드리게 된다.

또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계획이다.

학습세례식 11월 16일, 성찬식 11월 23일

97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

오늘 학습·세례를 위한 교육, 문답

유아세례식은 11월 16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1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박경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1월 16일	학습세례식	생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98년도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 교육 및 면접

11월 12일(수)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에서

날짜	구분	시간	과목	장소	강사
11월 12일 (수요일)	여자 서리집사, 권찰 후보	12:40	교회의 봉사와 원리	갈릴리홀	김성환 목사
		13:40	청지기론	갈릴리홀	김희수 목사
	남자 서리집사 후보	14:40	면접	교육관 307호	
		20:10	교회의 봉사와 원리	베다니홀	김성환 목사
		21:00	청지기론	베다니홀	김희수 목사
		21:40	면접	교육관 307호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구원을 얻은 자의 즐거움 (2)

(이사야 9:1-7)

지난 주 설교에 이어
<지난 주>

1. 누가 구원의 복을 받겠다고 하십니까
2. 구원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3.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까

- (1)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 (2)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 ① 기묘자 ② 모사 ③ 전능하신 하나님

④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십니다.

'아버지'란 창조자 혹은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질서있게 움직이도록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자식을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⑤ '평강의 왕' 이십니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백성을 절대 안전하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치안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상의 네 가지 책임만 잘 감당하면 백성은 평강을 누립니다. 다른 나라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백성을 보호하고 의식주 문제를 근심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고 강패나 도적이 없어서 밤에도 대문을 열어 놓고 살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수고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통치자가 세상에는 절대 없습니다.

참 평강의 왕은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유의 대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조망도 산골짜기도 평강을 누리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탄식감(롬 8장에는 세 가지 탄식감) 노릇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어떠한 탄식감입니까?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바람 불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바람 불면 저쪽으로 쏠리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욕심 따라 형편 따라 사는 인간들을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형편대로 살면서 오늘은 이 사람을 따라가고 내일은 저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목적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극단의 개인주의로 악독해진 자를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하여는 열 사람, 백 사람이 망해도 좋다는 것이고, 자기는 이긴 자의 즐거움을 누릴지언정 남에게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주머니만 차면 된다고 하고 남들은 고생을 해도 나만은 편안하고 남들은 울어도 나만은 웃고, 남들은 무리 죽음을 해도 나와 내 식구만은 재미있게 오래오래 살면 그만이라는 극단의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용하여 자기의 잇속을 차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역시 패역한 개인주의입니다.

셋째, 회개하지 않는 자를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하는데 도무지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적질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도적질을 계속합니다. 남들이 망하는 것을 열 번, 백 번 보고도 자기의 잘못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죄를 범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보시고 "...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 (마 11:21)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넷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머나먼 여행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근심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인생들은 질병의 보따리를 짊어졌습니다. 인생들은 죄악의 보따리를 짊어졌습니다. 근심과 질병과 죄악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하여 쉬지도 못하고 가시밭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너희는 울어도 힘써도 잠도 할 수가 없으니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와 지난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만 믿고 오늘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탄식감이 변하여 자량감이 됩니다.

목적없이 살던 인간이 뚜렷한 목적을 정하여 바로 살게 되고 자기 혼자만 살면 그만이라던 개인주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마음을 가질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다. 남이 죄를 범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은 그런 죄가 없는가 살펴서 죄가 발견이 되면 핑계없이 가슴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왕은 그의 세력이 좋을 때는 굉장하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 꺾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왕은 예수님뿐이십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만 영원하시고 그의 통치만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면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죄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잘못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 주셨습니다.

4.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아기'로 보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5.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3)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귀로 듣고 마음에 기억하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4)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날개 밑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품 안에 내 생의 영원한 주소로 정하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미국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브라질에 가서도 살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을 떠나는 날이면 자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과거에 미신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복음이 없는 광명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미신을 따르면서 육신과 영혼이 흑암에서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 사람을 받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 창성해지고 좋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고 승리의 즐거움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에 빠져 헤매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HOLY, HOLY, HOLY

(Isaiah 6:1-7)

As we grow in our awareness day by day, towards a closer and mor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our vision of His greatness increases. God is always much greater than we think. And we are invariably much worse than we can imagine! The importance of having an in-depth understanding of God's holiness and our sin is a prerequisite for growth in Christ. Our need for purification in Christ becomes evident when the meaning of God's holiness is perceived and recognized. Isaiah had an astonishing encounter with God. In perhaps the most beautiful vision of his life, Isaiah saw God and experienced His forgiving power. His prophetic commission focuses on God's absolute holiness. Opening our hearts to his first-hand experience of God's awesome holiness will increase our knowledge of who God is and who we are in Christ.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name 'Isaiah' means "God is salvation". He was a prophet in Judah when Israel was being destroyed by the Assyrians. He prophesied for sixty-years during the reigns of Kings Uzziah, Jotham, Ahaz, Hezekiah, and Manasseh. His whole life was concerned about speaking of God's plan for salvation in Christ. "Concerning this salvation, the prophets, who spoke of the grace that was to come to you, searched intently and with the greatest care, trying to find out the time and circumstances to which the Spirit of Christ in them was pointing when he predicted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glories that would follow. It was revealed to them that they were not serving themselves but you, when they spoke of the things that have now been told you by those who have preached the gospel to you by the Holy Spirit sent from heaven. Even angels long to look into these things." (1 Pet. 1:10-12)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had a purpose and that purpose was to reveal Christ's suffering and glory. Jesus told the two men on the road to Emmaus,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Did not the Christ have to suffer these things and then enter His glory?" (Luke 24:25-26) Jesus explained to these men,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everything the Scriptures said concerning Himself. Isaiah's writings are quoted in the New Testament more than any other prophet, with some of the most cherished words from God in the Scripture coming through this prophet.

The book of Isaiah contains sixty-six chapters. The first thirty-nine chapters deal with God's judgment (lawsuit) against Zion (Jerusalem). The following twenty-seven chapters cover God's redeeming salvation and glory. Isaiah unveils the full dimensions of God's judgment and salvation, most especially the glory of Christ,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9:6)

The book of Isaiah underscores God's righteousness and grace, His blessings and His curses. God is angry at Zion because of their rebellion (1:2). Zion is impure and God wants to punish them, but His real hope is to forgive them (1:18). People think that God will save them no matter what because God is so good. That's not true, that's not what the Bible says! "Nothing impure will ever enter the New Jerusalem, nor anyone

거룩 거룩 거룩

(이사야 6:1-7)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하여 더욱 놀라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늘 더욱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미가 이해되고 인정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 되었을 그 만남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거룩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앗수르인들에 의하여 망해가고 있을 당시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들이 통치하였던 66년의 기간에 걸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벧전 1:10-12).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5-26)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들에 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글들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욱 많이 신약에 인용이 되었으며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들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39장은 시온(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소송)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이후의 27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9:6)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주의 축복과 주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 때문에 시온에 대하여 노하셨습니다(1:2). 시온은 불경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1:18).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도,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계 21:27).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건디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결치 못

who does what is shameful or deceitful, but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Rev. 21:27). God is good and only those who endure in Christ will enter heaven. Lack of purity is primarily a result of not knowing God and there is a special place, where even worms don't die for such people (Mark 9:48).

The opening of Isaiah 6,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seated on a throne, high and exalted,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has many significant meanings. King Uzziah died of leprosy. In Jewish tradition, leprosy was a sign of sin. Those who had leprosy were usually cast out from Jerusalem, exiled from God. Leprosy was a physical and a spiritual disease. For a Jewish king, a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 to die of such a disease was disastrous. Jewish kings were servants of God. Isaiah realized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hich was utterly hopeless in his vision. He understood God's punishment and its consequences. He desperately cried in God's temple.

In his heart-felt mourning, Jehovah (Old Testament expression for God), appeared. Remember, in God's temple there is a curtain that separates the place of Holies of holy. Only a priest enters once a year behind this curtain. Isaiah saw behind this special curtain. He saw the whole temple for the train of the LORD's robe filled the temple. He saw the LORD! Spiritually this means that the curtain was pulled away. Right before Jesus died on the cross, He spoke the words "It is finished", and the special curtain in God's temple was torn in two. Isaiah experienced God's hidden grace in Christ.

Isaiah thought there was no hope. God was saying that there is hope. Nobody else was in the temple at this time, only Isaiah. In this case of occasion, everyone should have been at the temple but only Isaiah was there. This should remind us that in times of hardship, we should place ourselves in communion with God.

He also saw and heard angels calling to one another,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vs. 3). God's temple shook at the sound of their voices and filled with smoke. Isaiah felt that he was the only one who truly loved God, but at this time, in God's presence, Isaiah became aware of his total inadequacy. He was the worst person. He cried, "Woe to me!" and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vs. 5). Isaiah truly experienced God and His holiness. This experience led him to fully comprehend his impurity, his sinfulness.

At this moment of recognition, God touched his mouth with a live coal taken from the altar and said,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vs. 7). God took his sins away. Before this moment, Isaiah thought he knew God. After this moment, he knew that he didn't know God. He found out that God is much greater than he thought and he is much worse.

Before we undertake our Christian journey, it's paramount that we recognize our need for the grace of God. Isaiah found God's solution and God purified Isaiah with fire. In Christ, God purifies us. In Christ is an expression that signifies our relationship to Jesus. Through faith in Jesus, not saving knowledge of who He is but honest and simple trust in Him, we receive New Life and our names are recorded in the Lamb's book of life. This New Life empowers us with the Holy Spirit to stand firm and persevere until we see Christ face to face.

God is holy. Heaven never stops saying: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Rev. 4:8). In order for u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He must purify us for our old nature that is sinful and unholy. God's plan of salvation began at the Garden of Eden and spread to Zion. After many years and many kings, the remnant of Israel was reduced to only one - Jesus Christ. In Christ, our natural born state of sinfulness is exchanged for His grace and we become born again with New Life. Let's open our hearts to the Lord, continually repent of our sins, and pray for His strength to keep us in obedience. Jesus is real and He should be the most real experience in our lives. There's only one way to eternal salvation and having faith in Jesus is it!

한 것은 우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며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특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막 9:48).

이사야서 6장의 서두에,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웃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문둥병은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축출을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문둥병은 신체적 질병인 동시에 영적인 질병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인 유대인의 왕이 그러한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절박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통곡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거룩한 장소를 구별짓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뒤의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특별한 휘장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찬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성전 안에는 오직 이사야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야 했으나 오로지 이사야만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3절) 라며 찬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음성으로 진동하였고 연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자기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는 그가 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 나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5절)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됨을 완전히 깨닫게끔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제단에서 가져온 편 숯을 그의 입에 대시며,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제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자신은 훨씬 더 못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로써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솔직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생명을 얻고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성령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바라보게 될 때까지 우리를 견디도록 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늘에선 결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계 4:8)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되고 거룩하지 않은 성품을 정결케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시온에까지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왕들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죄된 근성은 주님의 은혜로서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계속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순종케 하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향한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

박 승 훈
(목사, 살롬교회 군목)

할렐루야! 단풍이 들과 산을 한껏 아
름다운 색으로 치장하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또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1년
동안 땀흘리고 수고한 보람을 열매로 거
두어 들이는 기쁨의 계절인 것 같습니
다.

충현교회가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정성어린 헌금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군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100배의 결
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지만 이곳 최전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의 손길이 있기에
날마다 보람차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주
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마련한 초코파
이와 요쿠르트를 가지고 밤에 보초를 서
고 근무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찾아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상담도 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또 복음을 받
아들이는 것을 볼 때에 군 전도의 보람
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 전도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바깥 교회에서는 젊은
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
케 해 주고 즐겁게 해 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유혹하는 쾌락의 장소들이 도처
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까지 졸업해 버리는 사례들이 너무
나 빈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민족의 장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대한
민국의 젊은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강제로 군대라는 울타리 속에 집어 넣어
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여건들을
허락하시사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
여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길을 열
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는
형제들과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들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변화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고 감히 확신합니다.

군종복사단에서는 1996년부터 '비
전 2020'이라는 운동을 계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내 세례운동으로
말미암아 민족 복음화를 이뤄보자는 것
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힘 닦

는 데까지 세례전도운동을 실시하고 있
으며 주님께서 보내 주신 이 젊은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 힘
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신 충현교회
군전도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계
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에 147명이라는 젊은이
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시대의 최후의 선교의 보
루는 군 전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참 재미있습니다. 아직도 초
코파이 한 개와 껌 한 통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더
라도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
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고 후원
해 주시는 물질이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깥 교회에서 10만원으로 할
일을 이곳에서는 만원으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서
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박
7일씩 계속되는 훈련 속에서 추위와 더
위로 인해 인간의 극한 체력을 점점이라
도 하듯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 구절
이 적혀 있는 격려 기도문과 함께 초코
파이와 요쿠르트, 껌, 사탕 등을 넣은 위
문품을 받아드는 그들의 얼굴엔 기쁨의
웃음이, 그리고 훈련을 완수하겠다는 굳
은 의지와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군 전도에 헌신하고자
지난 6월 군목 장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8월에 장기가 확정되었다는 통보
를 받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하
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
움 없는 군목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겠
노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저와 이곳
살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
해 힘쓰시고 수고하시는 충현교회 군전
도회원 여러분과 충현교회가 제 뒤에 계
시다는 것이 마음 든든합니다. 건강하시
고 항상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군대는 참 재미있습니다. 아직도 초코파이 한 개와 껌 한 통 때
문에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계속적
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
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물질이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
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깥 교회에서 10만원으로
할 일을 이곳에서는 만원으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의 뼈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금 호 순
(권사, 4교구)

“파르릉”
“거기 광국이네 집이죠? 교통 사고
입니다. 빨리 성모병원 응급실로 오세
요.”

낮부터 너무 피곤한 터라 잠시 누웠
을 때 잠이 들었나 보다. 벨소리에 놀라
잠이 깨어 보니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경황
도 없이 전화는 끊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새 병원 문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다. 어떤 사고인지 불안했다. 응급
실로 뛰어 들어갔더니, 머리에 봉대를
감고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온 몸이
피투성이였다. 뇌를 다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군 입대를 앞두고 얼마전 다니던 학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아들을 보
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다. 가해자는 병
원에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를 보겠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정이 메말랐던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퍼졌다. 하지만, 우리를 사
랑하셔서 뼈까지 예비로 우리 몸 속에
준비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
에 참으로 감탄하게 되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입학한
작년까지, 한 해가 기울어 갈 이 무렵이
면 나는 고 3 입시생을 둔 부모로서 해
마다 입시 전쟁을 치러 왔다. 다섯 명의
아이들이 혹 재수라도 하게 되면 증복이
되어 큰 10년 동안 그 전쟁은 계속되어
왔다. 대학만 들어가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금식이나 작정기도, 산기도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너를 지키시며 보호
하신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
임이라.”

교도 휴학하고 입영 날짜를 기다리던 중
이렇게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
다. 그때 주님께서 부족한 내게 ‘감사하
라. 믿음없이 군대가서 적응하지 못할까
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아
들에게 준 것이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아이에 대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마음이 생겼다. 그토록
대학부 성경공부에 참석하라고 성화를
부렸건만, 신입반 4주 과정을 마치고 반
으로 인도되고는 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었다.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의 “보호자 들어오세요”라
는 말에 심장이 뛰면서 침이 마르기 시
작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인즉, 다리
뼈가 부러졌는데 살펴보니 그 뼈는 우리
몸에서 다른 뼈가 으스러지거나 손상되
었을 경우 때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여
분의 뼈(spare bone)라는 것이다. 그 뼈
가 부러졌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
다. 머리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였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들에게 몸이
완쾌되는 대로 대학부 집회에 꼭 나가겠
다는 신앙의 다짐을 받아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용했

로 이리저리 뛰어 다녔건만 이보다 더
중요한 자식의 신앙 성숙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금식은 커녕 기도도 제대로 드
리지 못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요즈음 혼자서는 잘하여도 상대방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세상이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가게 앞에서 공중전화
를 걸다가 골목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키시지 않으
시면 한 시라도 걱정없이 살 수가 있겠
는가. 곧 있으면 군 입대하게 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
도 제목을 주셨나 보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너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단다. 성경에 이
런 말씀이 있단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
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
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이
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
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97년도 은퇴자 및 장기 근속 대상자 명단

은퇴자는 만70세, 장기근속자는 10, 15, 20, 25년 근속 해당

장로, 권사에 20년 이상 봉사자는 원로 추대

교회는 한 직임을 맡아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을 매년 포상하여 오고 있는데 올해도 이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장기 근속자 선정은 직분을 받고 동일 직분에서 근속한 사람으로, 직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직분에서 장기근속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가 9년 근속한 후 서리집사 임명을 받는 경우 교회학교 근속연수는 해당이 안되고 서리집사 근속연수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근속일수는 취임 및 임명일로부터 포상 시행일까지로 하며 군복무 경우 제대와 동시 봉사직에 복귀하였을 때는 근속하되 군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금년말로 70세가 되는 직분자들은 은퇴를 하게 된다. 특히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로 은퇴하는 사람 중, 동일 직분에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을 원로로 추대하게 된다.

(은퇴자 및 근속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은퇴자

장로	김영삼(863)	서일영(383)
안수집사	주원홍(2926)	
권사	강봉옥(575)	고희주(87-87)
	김정덕(2301)	김현숙(999)
	라봉도(982)	박복실(613)
	백종숙(689)	성화기(2597)
	신명희(17)	이상권(907)
	임신설(588)	장요성(954)
	전일항(938)	정승화(85-672)
	조종원(203)	최혜영(5352)
	홍수임(82-796)	황승영(882)

· 장기 근속자

25년	서리집사(1973. 1)	김준호(1091)
20년(1978. 1)	장로	김영삼(863)
		윤명식(5289)
		조선근(1021)
	김은호(573)	
권사	교회주(349)	김상순(2315)
	이문자(995)	이봉재(20)
	이희수(653)	이희복(565)
서리집사	이춘만(2643)	정도원(3888)
	소재숙(1971)	윤익열(1310)

15년(1983. 1)

장로	서일영(383)	하대선(1566)
	최대원(2674)	박승준(2048)
	송기홍(797)	강은원(1236)
	오정현(1822)	최성현(2373)
	남선우(2777)	서동석(2182)
권사	경홍옥(529)	고남균(985)
	김태숙(2390)	박영숙(4580)
	신수옥(3146)	안소현(752)
	이귀분(383)	이인경(2258)
	조종원(2573)	한영숙(5377)

서리집사	권석태(1114)	권영주(81-283)
	김세홍(2541)	김영준(82-134)
	박남수(1865)	박종태(4426)
	윤선기(238)	이동식(80-244)
	이예경(81-175)	장영환(80-784)
	정영래(5346)	장정일(3836)
	최장국(1061)	하재명(1933)
	권명숙(4153)	권필순(80-25)
	김성녀(3888)	김영주(3807)
	김용숙(2122)	김종희(80-140)
	박복순(5071)	박영숙(5004)
	백덕임(2980)	백영기(3406)
	심복수(4398)	이강분(1701)
	이명숙(277)	이복희(4102)
	이인숙(81-40)	이형숙(679)
	전준희(5200)	정경희(80-396)
	정명실(4339)	정혜원(3291)
	주영자(5083)	차명신(3331)

10년(1988. 1)

장로	김재명(195)	박영식(3631)
	이종석(552)	손경수(898)
	윤성철(2795)	김광남(5058)
		이종국(3642)

권사

고인규(79-563)	김경순(1346)	김동원(80-815)
김분려(3413)	김순배(2813)	김심영(358)
김연수(4128)	김옥희(980)	김은순(2524)
김은주(81)	김종희(218)	박영업(1498)
박영임(761)	반정현(2368)	백경옥(79-9)
신정숙(1560)	양승희(1044)	어수덕(79-28)
유효열(80-198)	윤병인(805)	이규숙(1992)
이상권(84-594)	이순정(940)	이옥기(3120)
이옥남(196)	이인자(79-38)	이청자(2676)
이혜숙(1299)	전순임(652)	정순애(183)
최재호(1566)	한정심(79-633)	

서리집사

강경의(86-197)	강광옥(85-395)	고건일(84-258)
고광국(85-707)	기중선(84-724)	김관형(902)
김상기(80-226)	김성구(86-780)	김진경(86-836)
김신후(86-124)	김영철(82-328)	김영환(10)
김영호(86-309)	김정영(85-212)	김종린(84-1051)
김종만(378)	김형근(84-450)	남승락(84-685)
박상권(1343)	박용정(80-56)	박원화(81-900)
박종옥(81-47)	박종학(84-802)	박창근(83-320)
백종현(86-434)	소재숙(85-736)	송경수(2368)
송용옥(85-829)	송재현(81-295)	신광철(83-73)
염광호(86-133)	오동건(85-352)	윤병조(84-120)
이교영(83-155)	이규선(2857)	이덕균(84-1238)
이동희(79-96)	이성남(85-957)	이현상(84-909)
장윤균(84-63)	장연봉(80-558)	정영덕(86-480)
정완호(84-589)	정유채(85-394)	정호관(87-94)
최만엽(85-60)	추교현(85-65)	추병창(82-700)
표성배(5360)	강보현(82-328)	강승연(83-660)
권중희(2345)	기인양(86-309)	김말순(81-408)

김선자(86-133)	김성자(3880)	김수영(82-808)
김영숙(80-259)	김영애(79-463)	김영옥(80-553)
김영화(3661)	김필분(82-700)	김은숙(4277)
김재순(3465)	김정란(79-353)	김지순(79-578)
김진희(81-590)	김태금(80-516)	김현미(2355)
나순순(83-177)	남은희(4998)	민영기(3592)
박남분(82-31)	박명자(84-850)	박미서(83-653)
박복순(5287)	박애영(83-526)	박영숙(85-24)
박옥선(81-768)	박은숙(86-836)	박정숙(84-1238)
박향래(82-802)	박현순(85-636)	방군자(82-681)
변을진(80-412)	변정자(4823)	서명숙(3360)
성길운(4440)	손예숙(401)	송동준(81-463)
신일순(79-332)	신재금(84-1239)	심영숙(83-318)
심현경(600)	안명자(4975)	안용녀(80-558)
양순옥(81-312)	오말녀(84-630)	오혜숙(80-177)
우명자(2598)	유인숙(3081)	유정자(79-435)
유주옥(85-55)	유현정(79-37)	유호균(80-708)
윤경중(84-1022)	윤선주(80-797)	이경자(80-115)
이경자(85-212)	이귀남(83-158)	이남희(84-1241)
이명용(81-733)	이복연(85-567)	이선녀(84-170)
이성숙(81-901)	이성옥(81-414)	이순자(81-386)
이애나(81-5)	이애영(442)	이양호(84-595)
이연실(84-921)	이영숙(82-415)	이영희(81-914)
이영희(84-1173)	이현주(80-56)	이형순(2705)
임문자(85-335)	임애규(86-442)	임정일(85-42)
장수인(79-16)	장순태(83-629)	전봉자(3990)
전옥희(86-497)	전유강(84-463)	전은실(81-552)
전정우(81-554)	정금연(79-482)	정복득(82-546)
정숙자(79-87)	정애화(5316)	정영숙(81-257)
정영숙(82-39)	정운애(81-985)	정의숙(84-1102)
정정환(80-808)	조남숙(2990)	주영숙(81-586)
최귀순(84-765)	최순자(1834)	최혜순(82-536)
최재희(82-364)	탁경미(5129)	한금자(84-419)
한명숙(85-740)	한박선(84-1280)	한정숙(82-679)
황광옥(81-696)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18일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에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수험생을 둔 아버지들의 특별 요청으로 내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배다니홀에서 이국병 목사의 인도로 실시된다.

또한 수능시험 당일인 11월 19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기도회가 진행된다.

충헌게시판

에바다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에바다부에서는 수화교실 초급반 이상을 수료하신 분 중에서 에바다부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에바다부는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부서로서, 현재 학생반과 성인반에서 각 30-4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학생반은 오전 9시에, 성인반은 오후 1시에 교육관 109호에서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5부예배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5부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요한전도회와 메드로전도회에 소속하신 남자 성도님들(세례교인 이상) 중 안내위원으로 섬기실 분들을 예배위원회 지도 박경환 목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16일) 5부예배 후(오후 4시), 갈릴라홀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기도회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 몇 대입시험을 치를 예정인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 인도하는 안수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모든 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3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모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예배(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예배 및 친교, 의료 서비스, 전심사, 선물 증정 등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초청할 만한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끗한 손질한 겨울옷이나 생활에 요긴한 생활필수품(버누, 치약, 일상용품, 각종 식용통조림류, 이불, 가방 등)들을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오나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11월 9일(주일)까지 영어예배(교육)부(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1월 16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문의 : 이슬림 목사(552-8200), 이부성 집사(790-1123), 이정현 선생(442-2650)